



Credit/ESG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성만 credinal@hanafn.com
RA 김기범 kbkim1@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8월 12일 | Global Asset Research

CrediVille/ESG

한국형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 방안 확정

방귀뀌는 것은 좋으나 애기(공시)는 하고 꺾어라

지난 7월 8일 정부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이 발표되었다. 그에 따라 수년간 논의되어 온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 의무 공시의 구체적인 시기와 대상, 방법 등이 입법화 과정을 거쳐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확정된 최종안은 지난 2월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의견수렴안 대비 초기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이 확대되었고, 거래소 공시를 거치지 않는 법정공시의 즉시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예상외로 전향적으로 결정된 점이 특징이다. 보도자료의 표현을 빌자면 공시여건 성숙을 “기다리기”보다 “이끌어나가기”로 전략을 재설정한 셈이다.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최종안)을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1. (공시시기 및 대상):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를 시작하여 점차 확대(‘29년 5조원 확대, ‘30년 2조원 추가확대 검토).
2. (공시채널 및 면책): ‘28년(FY27)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자본시장법 개정 필요)하며 공시책임과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책제도를 도입.
3. (제3자 인증): 법정공시로서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인증도 제도화하되 인증 의무화는 공시 의무화 2년 후인 ‘30년부터 시행.
4. (스코프3 유예):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을 측정하는 스코프3는 공시대상별로 3년간 유예

한편, 금번 정부의 공시제도화 방안 확정의 특징은 당초 의견수렴안에서 제시되었던 ‘거래소 자율공시 후 법정공시 전환’의 2단계 방식이 아닌,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내 법정공시’로 전격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지는 등 예상과 달리 상당히 파격적이고 전향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이다.

이 같은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공시 방향성 설정은 최근 시계추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해외 주요국들의 움직임과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지난 보고서(CrediVille/ESG: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 관련 공시 규칙 폐지 제안: ‘260610) 이후로도 ESG 공시 완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SEC는 5월 29일 기후 관련 공시 규칙의 전면 폐지안을 의결했고, 8월 3일 60일간의 의견수렴이 종료되었다. 이에 관련하여 연내 최종 폐지 표결이 예상된다. EU 역시 올해 2월 옴니버스 I 패키지를 공식 채택하여 CSRD 적용 대상을 축소했고, 이로써 기존 대상의 약 80%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의무에서 제외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정부가 최근 미국/유럽과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가능성은 이웃나라 일본의 행보에 자극을 받아서 그랬을 수 있다.

일본은 2023년 내각부령 개정으로 법정공시 서류인 유가증권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담도록 의무화했고, 2025년 3월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준을 전면 도입한(한국

또한 ISSB 기준을 전면 도입) SSB(일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공시기준을 확정하여 프라임시장(한국으로 치면 KOSPI) 시가총액 3조엔 이상 기업부터 FY2027 의무 공시 적용 이후 1조엔-5,000억엔 이상의 기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여기에 추가로 제3자 인증도 2028년부터 의무화된다. 한국 최종안의 사업보고서 직행, 미래·추정정보에 대한 적극적 면책(Safe harbor) 설계는 일본 모델과 궤를 같이하며, 금융위 보도자료도 면책제도의 해외사례로 일본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가능성은 중동사태 여파로 에너지안보위험이 부각됨에 따라 석유와 같은 전통연료에의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더욱 빨리 확충해야겠다는 위기감이 작용했을 수 있다. 물론 외견상 에너지전환과 공시제도 강화 간에 직접적인 연계고리는 높지 않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강화는 자연스럽게 ESG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매개로 작용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포인트는 ‘탈탄소는 제대로 못하게 되더라도 공시는 제대로 해보자’라는 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다. 중동사태를 겪으면서 에너지수급의 안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최근 부각되고 있는 현안은 AI혁명과 결부된 에너지 잠재수요의 폭증이다. 그런데 현 에너지전환과 전력믹스계획으로는 폭증하는 에너지수요를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확충만으로는 도저히 맞출 수 없기에 전통적인 화석연료나(그간 찬반논쟁이 있었던) 원자력도 소환되어야 하고 실제로 그러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이 탈탄소/탄소감축과 같은 기후대응 관련 목소리는 힘을 잃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인지부조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고 그 과정에 적절한 명분 내지 보상심리의 발로로 나타난 것이 ‘공시강화’일 수 있다(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영역이니까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말자)

즉, 이전에는 “냄새나니까 방귀를 뀌어서는 안 된다”였다면 이제는 현실상 어쩔 수 없으니 “방귀 뀌는 것은 좋지만 얘기(공시)는 제대로 하고 뀌어라”로 바뀐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최근에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마지막으로 언급한 원인 또한 적지 않게 작용했을 것이다. 일본은 강화된 공시기준을 ‘25년에 확정한 바 있고 미국과 유럽의 공시기준 후퇴는 그 이후에 구체화되었다. 즉, 한국의 공시기준 확정은 전반적으로 공시기준이 약화되는 추세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는 실제 실행과정이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입법과정과 세부적인 추진과정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선언적인 전략제시와는 별개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초심을 잃지 않기를 기대한다.

도표 1.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의견수렴안 및 확정안 비교

구분	2026년 2월 의견 수렴안	2026년 7월 8일 확정안
최초 의무공시 시행 시기	2028년 (FY 2027)	
최초 적용대상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029년 5조원 이상 2030년 2조원 이상 확대 검토
공시방식	거래소 공시 시작 이후 사업보고서 공시로 전환	2028년부터 사업보고서 직접 공시
법적 책임 및 면책	거래소 공시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제한된 책임	법정공시 책임을 적용화되, 초기 3년간 포괄적 면책 부여
Scope 3 공시	기업별 최초 적용 후 3년 유예	
제 3자 인증	단계적 의무화 방안 검토	2030년부터 의무화 추진

자료: NICE신용평가, 하나증권

도표 2. 한국 지속가능성 의무공시(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대상 기업수

구분	'28년(FY27)	'29년(FY28)	'30년(FY29)잠정	'31년(FY30)잠정
기준(연결자산총액)	10조원	5조원	2조원	2조원
공시대상	107개사	157개사	259개사	259개사
공시범위 포함 종속회사수	184개사	3,014	3,490	3,799

자료: 정부보도자료, 하나증권

지속가능성 공시는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직행

사업보고서상 연결공시 대상인 “주
요 종속회사”
(FY25 자산·매출액 기준으로,
산출. 실제 공시시점에서
공시대상 기업수, 종속회사수 등은
달라질 수 있음)

도표 3. FY25 연결자산기준, '28년(FY27) 지속가능성 공시 대상기업 List

발행사명	업종	자산총계(FY25)(조원)	발행사명	업종	자산총계(FY25)(조원)
KB금융	은행지주	797.92	삼성카드	카드	32.17
신한지주	은행지주	786.01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31.12
하나금융지주	은행지주	674.59	SK스퀘어	IT투자지주	30.5
우리금융지주	은행지주	601.46	SK텔레콤	통신	30.11
삼성전자	IT/반도체	566.94	CJ제일제당	음식료	29.74
기업은행	국책은행	500.69	현대건설	건설	27.79
현대차	자동차	368.84	카카오	인터넷	27.78
삼성생명	생명보험	350.69	두산에너빌리티	발전설비	27.51
한화	지주	289.33	LG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26.92
한국전력	전력	254.93	한국타이어엔...	타이어	26.65
SK	지주	213.52	S-Oil	정유	26.56
한화생명	생명보험	178.53	HD현대중공업	조선	26.16
SK하이닉스	IT/반도체	176.11	LS	전선/지주	24.99
BNK금융지주	은행지주	161.1	롯데지주	지주	23.07
미래에셋증권	증권	150.28	셀트리온	바이오	22.33
한국금융지주	증권지주	136.16	한화손해보험	손해보험	20.49
메리츠금융지주	금융지주	135.46	고려아연	비철금속	20.4
SK이노베이션	정유/에너지	105.61	한화오션	조선	20.14
POSCO홀딩스	철강(지주)	105.19	유안타증권	증권	20.03
LG화학	석유화학	101.06	LG유플러스	통신	19.68
기아	자동차	98.98	교보증권	증권	19.27
iM금융지주	은행지주	98.86	포스코인터내셔널	상사/에너지	18.75
삼성화재	손해보험	96.45	현대글로벌비스	물류	18.59
삼성물산	종합상사/건설	86.53	CS건설	건설	18.46
NH투자증권	증권	83.39	한화투자증권	증권	17.36
다우기술	IT/실질지주	82.95	KCC	건자재/실리콘	16.8
키움증권	증권	81.17	SK디스커버리	지주	16.3
삼성증권	증권	79.68	E1	LPG	15.92
HD현대	조선(지주)	78.69	신세계	유통	15.83
DB손해보험	손해보험	74.02	삼성중공업	조선	14.95
JB금융지주	은행지주	73.12	삼성전기	전자부품	14.6
현대모비스	자동차부품	70.4	DB증권	증권	14.26
LG전자	IT/가전	68.62	코리안리	재보험	14.26
LG에너지솔루션	이차전지	67.15	KT&G	담배	14.19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	53.95	삼성에스디에스	IT서비스	13.45
한국가스공사	가스	53.63	대우건설	건설	13.36
현대해상	손해보험	50.43	HDC	지주	12.69
대한항공	항공	50.41	현대차증권	증권	12.4
CJ	지주	46.97	두산밥캣	기계	12.28
KT	통신	42.95	DL	지주	12.18
삼성SDI	이차전지	42.26	LG이노텍	전자부품	11.93
NAVER	인터넷	41.08	LS네트웍스	유통/실질지주	11.69
HD한국조선해양	조선(중간지주)	39.54	현대백화점	유통	11.25
대신증권	증권	39.13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11.06
롯데쇼핑	유통	37.91	유진투자증권	증권	11.05
GS	지주	35.71	팬오션	해운	10.85
동양생명	생명보험	35.35	한온시스템	자동차부품	10.49
현대제철	철강	34.44	현대지에프홀딩스	지주	10.49
LG	지주	33.98	다올투자증권	증권	10.46
HMM	해운	33.56	신영증권	증권	10.38
이마트	유통	33.5	한국항공우주	방산	10.37
한화솔루션	화학/태양광	33.14	CJ대한통운	물류	10.34
두산	지주	32.93	한화시스템	방산/IT	10.33
미래에셋생명	생명보험	32.92	삼성E&A	건설/플랜트	10.04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하나증권

주:

- 1) 기준일: 2026년 12월 중 상장폐지가 예정된 아시아나 항공 제외(FY25 연결자산총계 약 12조원)
- 2) EU탄소국경조정제도: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대상 6대 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관련기업은 음영으로 표시

도표 4. 주요국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와 수준 스코어링 비교

평가항목	한국	일본	중국	미국	EU
법적 강제력	3 자본시장법 법정공시 법 개정 미완 (시행 중)	5 금융상품거래법· 내각부령 개정 완료·시행	2 거래소 자율규제 지침 법률 근거 아님	1 연방규칙 폐지 절차 진행 중	4 CSRD 지침 회원국 국내법 전환
공시채널 파급력	5 사업보고서 재무제표와 동일 시점	4 유가증권보고서 법정공시	2 별도 지속가능발전보고서	1 캘리포니아 의무공시 CARB 제출·웹 게시	3 경영보고서 내 지속가능성 섹션
최초 적용 시점	1 2028년 (FY2027) 주요 5개국 중 최후	2 2027년 3월 말 (FY2026)	4 2026.4월 (FY2025) 이미 1차 보고	3 '24년 채택 이후 효력정지 (캘리포니아 '26년 SB253)	5 FY2024 개시 최초 시행국
확대 일정	5 연결기준 자산총계 기준 10조→5조→2조원	4 시가총액 기준 3조→1조→5천억엔	3 '30년까지 체계 구축 후 확대 계획	1 연방정부 ESG 공시 의무화 폐지 절차	2 축소 개정
제3자 인증	2 2030년 의무화 시행 2년 후	4 적용 다음 년도 의무화 (시차 1년)	1 의무 아님 (자율)	3 캘리포니아(SB253 인증) 연방정부 의무 없음	5 이미 제한적 보증 시행 합리적 보증 이행 예정
Scope 3	2 2031년 개시 3년 유예	4 적용 시점부터 요구 세이프하버로 보완	1 지침상 요구 제한적	3 SB253 기준 2027년 이후	5 ESRS상 요구 현재 적용 중
면책 제도	1 초기 3년 포괄적 면책 사실정보까지 포함	3 Scope3 정량정보 중심 제한적 세이프하버	4 명시적 면책 규정 부재	2 공시 내부체계를 구축한 경우 일부 적용	5 별도 세이프하버 없음
현재 공시 상태	2 기준·로드맵 확정 법 개정 미완	3 법제화 완료 시행 대기	5 시행 중 (1차 보고 완료)	1 연방정부 집행 근거 후퇴(소송으로 불안정)	4 시행 중 (대상 대폭 축소)
총점 (40점 만점)	21	29	22	15	33
종합 순위	4위	2위	3위	5위	1위

자료: 하나증권
주: 친(親)ESG 5점 ~ 반(反)ESG 1점 / 평가 방식: 각 항목별로 5개국에 5·4·3·2·1점을 중복 없이 배분하는 상대순위 방식(항목별 합계 15점, 총점 40점 만점).

금융업의 경우 자사의 영업
활동보다는 대출·투자·보험
포트폴리오 에서 발생하는
배출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90%
이상에 이를 것.

도표 5. 지속가능공시 관련 금융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Scope 3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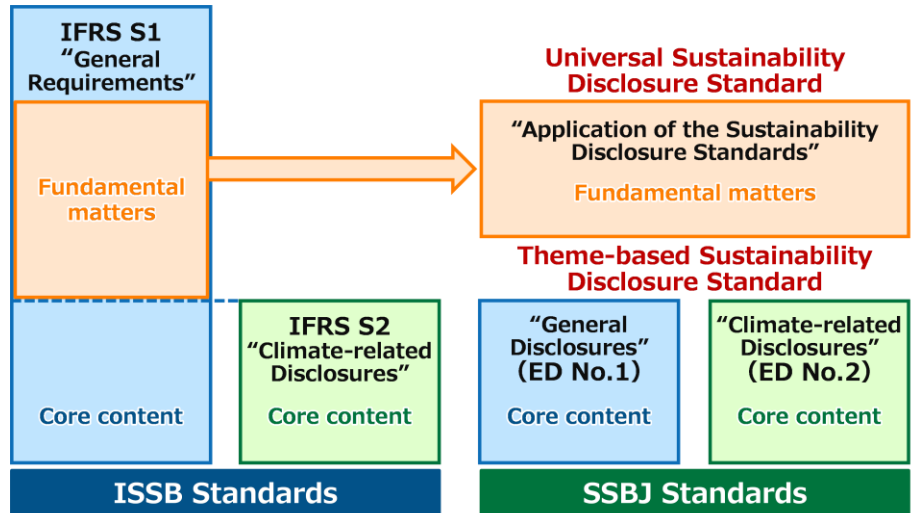
스코프 3 (Scope 3)의 15가지 카테고리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다운스트림 운송 및 유통
자본재	판매된 제품의 가공
스코프 1·2 배출량에 포함되지 않는 연료 및 에너지 관련활동	판매된 제품의 사용
업스트림 운송 및 유통	판매된 제품의 수명종료 시 처리
영업에서 발생한 폐기물	다운스트림 리스자산
출장	프랜차이즈
종업원 통근	투자
업스트림 리스자산	

자료: 한국회계기준원(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위한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하나증권

도표 6. ISSB 지속가능성 기준과 SSBJ 지속가능성 기준 비교

2022년 7월 설립한
일본 지속가능성 표준 위원회
(SSBJ)은 세가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

- 1.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적용”
- 2. 주제별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공개 초안 1 “일반 공시”
- 3. 주제별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공개 초안 2 “기후 관련 공시”



자료: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of Japan (SSBJ), 하나증권

크레딧스프레드 동향 및 전략

국고채금리 하락, 신용스프레드 강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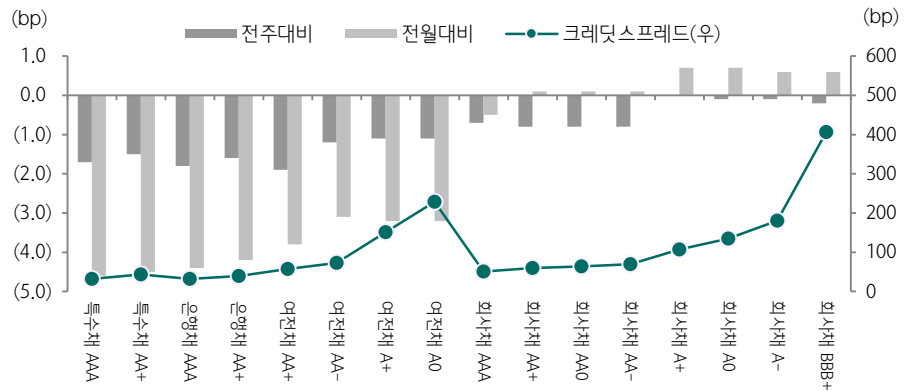
국고채금리 하락

지난주 국내 채권시장은 초단기 구간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강세를 보인 반면 1년물은 0.5bp 상승했다. 8월 금통위 연속 인상 경계가 남아 있는 초단기 구간을 제외하면 곡선이 전반적으로 눌렸다. 지난주 금리가 유가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상승폭을 키웠던 것과 달리, 이번주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에 WTI가 \$70대로 하락하면서 '유가 상승 + 통화 긴축' 리스크가 동시에 완화된 영향을 받았다. 또한 미국 7월 비농업고용이 2.3만명 감소하며 연준의 9월 인상 확률이 축소됐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하락했다. 다만 7월 한국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비 +2.8%로 하회하며 오름세가 둔화되었으나 근원물가는 지속 상승하고있는 점을 고려할 때 8월 금통위에서의 연속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신용스프레드 강보합

지난주 신용스프레드는 전반적으로 축소되었다. 섹터별로는 은행채/공사채/여전채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여전채의 축소 폭이 회사채를 상회했다. 만기별로는 2~3년 구간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우리금융지주 상각형 조건부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에서 양호한 수요가 확인되며 우량 크레딧 투자심리를 뒷받침했다. 다만 축소 폭이 상위 등급·우량 섹터에 집중된 점을 고려했을 때 섹터 간 차별화는 여전한 모습이다.

도표 1. 주요 크레딧 채권 스프레드 주간/월간 변동 (3년물 기준)



주: 2026.8.7 기준 /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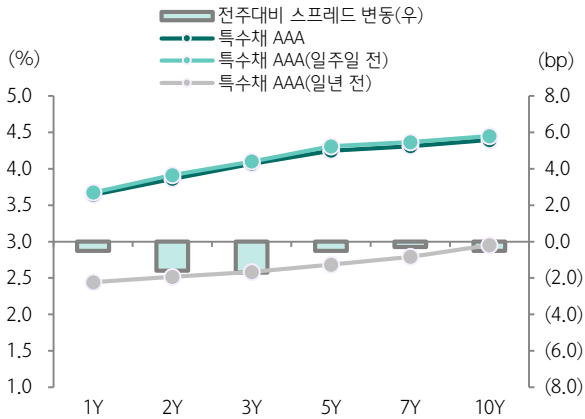
도표 2. 크레딧채권 금리 및 스프레드 변동

(단위: %, bp)

구분	금리					스프레드					스프레드 변동(WoW)					스프레드 변동(MoM)				
	1Y	2Y	3Y	5Y	10Y	1Y	2Y	3Y	5Y	10Y	1Y	2Y	3Y	5Y	10Y	1Y	2Y	3Y	5Y	10Y
국채	3.40	3.57	3.75	3.97	4.22	-	-	-	-	-	0.5	-8.1	-1.3	-5.5	-4.7	5.2	-8.2	-3.1	-2.5	-2.2
특수채 AAA	3.64	3.86	4.07	4.25	4.40	40.8	22.8	32.3	28.4	18.2	-0.5	-1.6	-1.7	-0.5	-0.5	-3.9	-6.8	-4.6	-0.8	-0.2
AA+	3.71	3.97	4.18	4.37	4.60	47.1	33.4	43.5	40.8	38.0	-0.6	-1.6	-1.5	-0.5	-0.5	-3.3	-6.7	-4.5	-0.8	-0.2
은행채 AAA	3.65	3.85	4.07	4.29	4.64	41.2	21.1	32.1	32.4	42.1	-0.3	-1.7	-1.8	0.0	0.0	-6.4	-9.3	-4.4	-0.3	-0.1
AA+	3.70	3.93	4.14	4.37	4.72	46.2	29.3	39.4	40.0	50.2	-0.3	-1.5	-1.6	0.0	0.0	-6.4	-9.1	-4.2	-0.3	-0.1
여전채 AA+	3.88	4.19	4.32	4.39	5.58	64.4	55.2	57.2	42.4	136.0	-2.2	-2.1	-1.9	0.0	0.0	-4.7	-7.8	-3.8	-0.1	0.0
AA-	3.96	4.31	4.47	4.66	5.97	72.5	67.0	72.6	69.0	175.7	-2.4	-1.5	-1.2	0.0	0.0	-4.3	-7.3	-3.1	0.0	0.0
A+	4.31	4.79	5.26	5.79	6.67	107.8	115.1	151.0	182.4	245.8	-1.9	-1.2	-1.1	0.0	0.0	-3.9	-7.3	-3.2	-0.1	0.0
A0	4.98	5.54	6.03	6.45	7.09	174.6	190.5	228.2	248.5	287.9	-1.9	-1.2	-1.1	0.0	0.0	-4.0	-7.3	-3.2	0.0	0.0
회사채 AAA	3.78	4.15	4.25	4.34	4.71	54.2	51.2	50.5	37.6	49.2	-0.6	-0.8	-0.7	0.0	0.0	1.8	-1.7	-0.5	0.2	0.3
AA+	3.87	4.23	4.35	4.43	4.99	63.6	59.1	60.1	46.6	77.6	-0.5	-0.3	-0.8	0.0	0.0	2.2	-1.2	0.1	0.2	0.3
AA0	3.91	4.26	4.39	4.50	5.33	67.3	62.2	64.2	53.3	111.7	-0.5	-0.2	-0.8	0.0	0.0	2.4	-1.1	0.1	0.2	0.2
AA-	3.94	4.31	4.44	4.60	5.69	70.9	67.1	69.3	63.6	147.9	-0.5	-0.3	-0.8	0.0	0.0	2.5	-1.2	0.1	0.3	0.3
A+	4.09	4.58	4.82	5.26	6.27	85.4	94.5	107.2	129.7	205.7	-0.2	-0.3	0.0	0.0	0.0	3.1	-0.8	0.7	0.1	0.2
A0	4.25	4.77	5.09	5.71	6.73	101.1	113.3	134.4	174.7	251.9	-0.3	-0.2	-0.1	0.0	0.0	3.1	-0.6	0.7	0.0	0.2
A-	4.52	5.12	5.55	6.30	7.25	128.1	148.5	180.3	233.7	303.0	-0.2	-0.2	-0.1	0.0	0.0	3.1	-0.8	0.6	0.0	0.2
BBB+	5.57	7.16	7.81	8.18	8.75	233.8	352.2	406.7	421.8	453.3	-0.3	-0.5	-0.2	0.2	0.0	3.1	-1.0	0.6	0.2	0.3

주: 1) 2026.8.7 기준, 2) 1Y, 2Y는 통안채(이표) 동일물 대비. 이외 3Y 이상은 국고채 동일물 대비 /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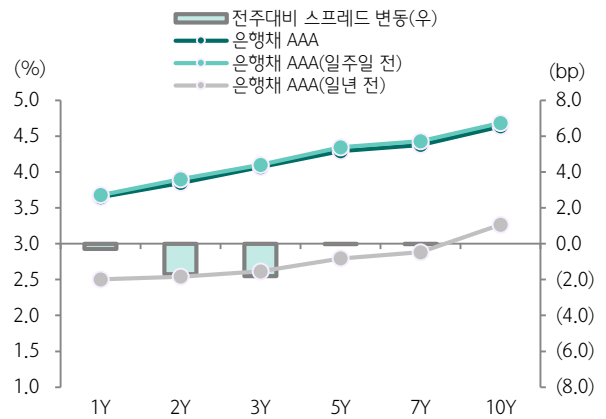
도표 3. 특수채 AAA 금리커브와 스프레드 변동



주: 2026.8.7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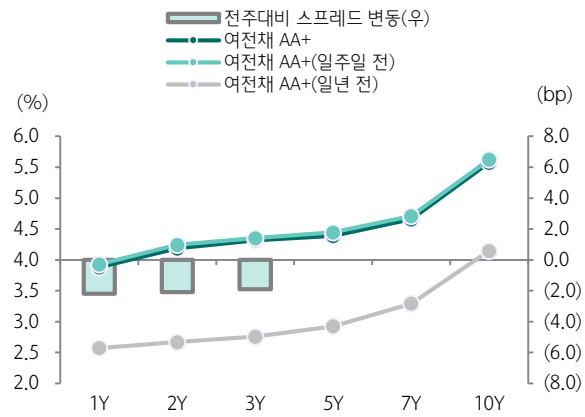
도표 4. 은행채 AAA 금리커브와 스프레드 변동



주: 2026.8.7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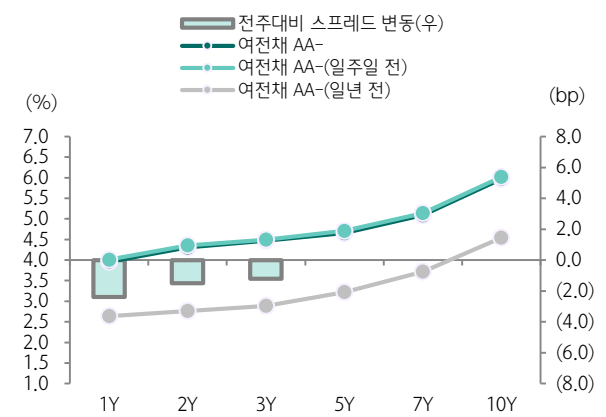
도표 5. 여전채 AA+ 금리커브와 스프레드 변동



주: 2026.8.7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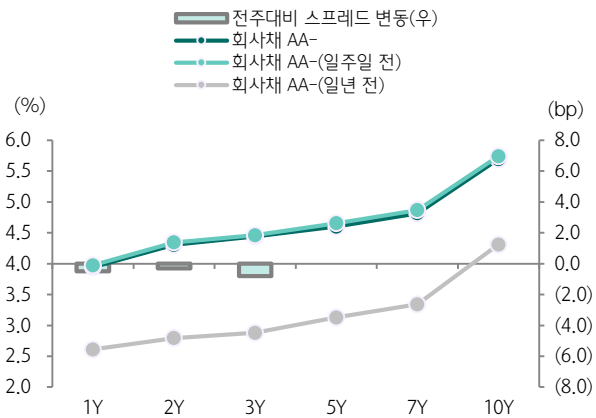
도표 6. 여전채 AA- 금리커브와 스프레드 변동



주: 2026.8.7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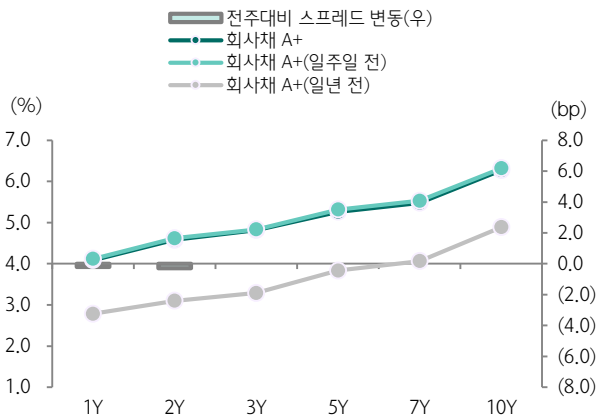
도표 7. 회사채 AA- 금리커브와 스프레드 변동



주: 2026.8.7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8. 회사채 A+ 금리커브와 스프레드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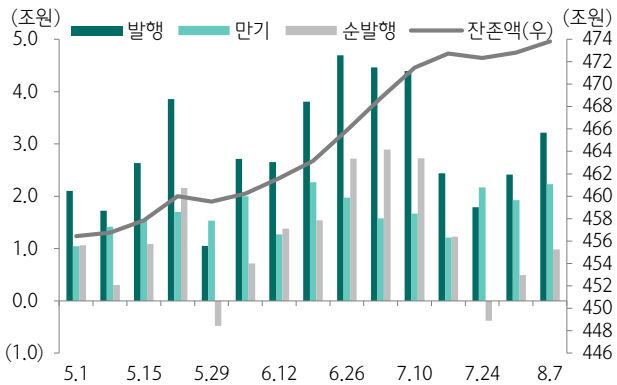


주: 2026.8.7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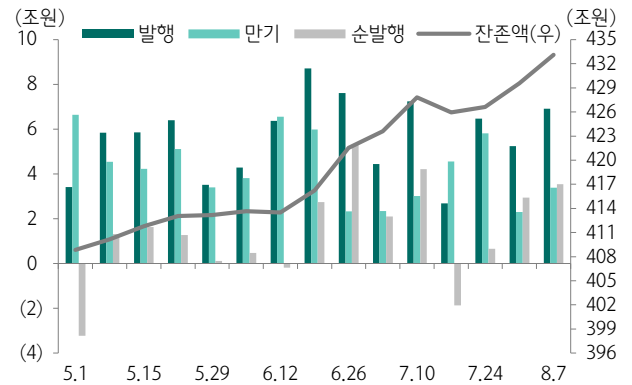
발행시장

도표 9. 특수채 발행/만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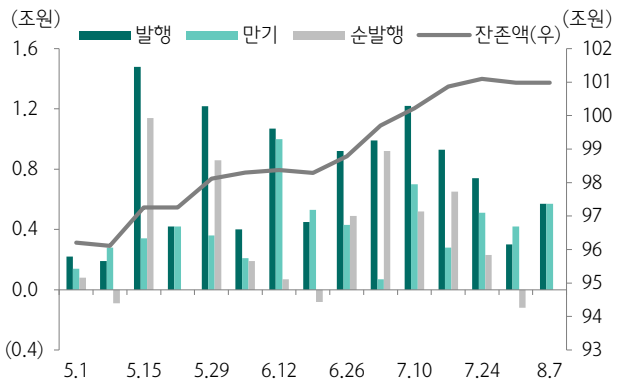
주: 발행일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10. 은행채 발행/만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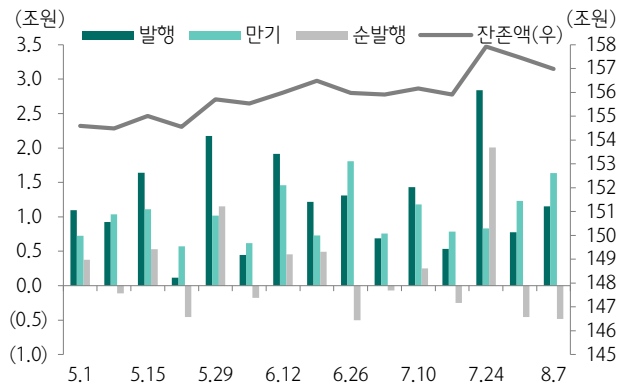
주: 발행일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11. 카드채 발행/만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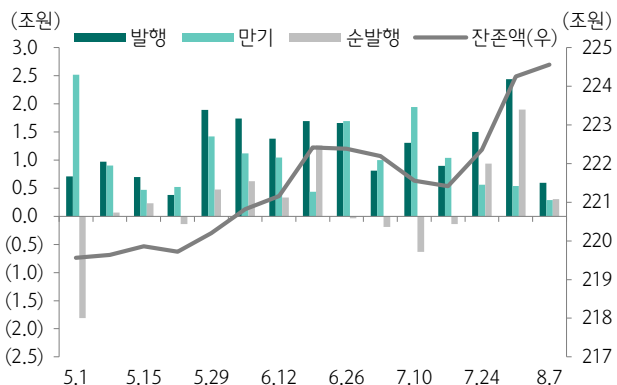
주: 발행일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12. 캐피탈채 발행/만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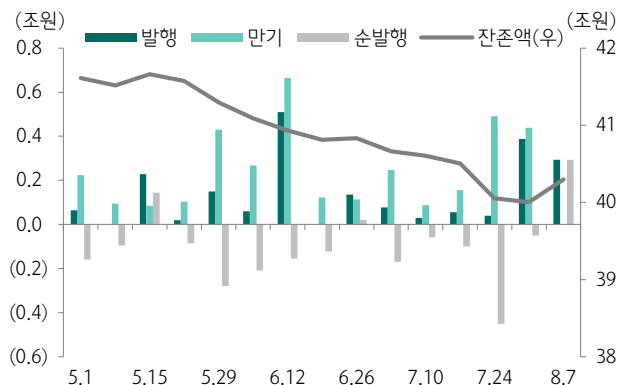
주: 발행일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13. AA등급 이상 회사채 발행/만기 현황



주: 발행일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14. A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만기 현황



주: 발행일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15. 회사채 수요예측 결과

(단위: 억원, bp, %)

수요예측일	종목명	신용 등급	발행일	발행 만기	금액		참여 금액	수요예측 경쟁률(:1)	금리밴드			결정 스프 레드	사용목적
					발행	예측			기준금리	하단	상단		
2026-08-06	우리금융지주(신종)21	AA-	2026-08-13	영구 (5Y클)	4,000	2,700	5,840	2.16	절대금리	4.3	4.9	4.79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하나증권
주: 공란은 수요예측 결과 공시 전 / 수요예측 경쟁률은 유효수요 기준

도표 16. 이번 주 회사채 수요예측 대상 기업

(단위: 억원, bp, %)

수요예측일	발행사	회차	신용 등급	발행일	발행만기	예측금액	금리밴드			사용목적
							기준금리	하단	상단	
-	-	-	-	-	-	-	-	-	-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하나증권

유통시장

도표 17. 주간 회사채 유통시장 상위거래

(단위: 억원, %, bp)

종목명	신용등급	거래금액	거래일	만기일	잔존기간	민평금리	평균거래금리	평균-민평
KB금융지주59	AAA	1,500	2026-08-06	2029-03-26	3년	4.109	4.199	9.0
우리금융지주28	AAA	1,000	2026-08-04	2028-05-29	2년	4.071	4.043	-2.8
롯데리츠6-3	AA-	900	2026-08-03	2026-08-06	3월	3.517	3.151	-36.6
신한금융지주181-1	AAA	800	2026-08-06	2027-05-12	1년	3.722	3.711	-1.1
LG전자74-4	AA0	800	2026-08-05	2029-05-29	3년	4.244	4.187	-5.7
LG화학57-2	AA0	800	2026-08-03	2027-03-05	1년	3.683	3.747	6.4
미래에셋증권69-2	AA0	700	2026-08-03	2027-01-15	6월	3.554	3.540	-1.4
LG에너지솔루션4-2	AA0	600	2026-08-07	2028-02-14	2년	4.117	4.117	0.0
케이씨씨78-1	AA-	600	2026-08-06	2028-03-07	2년	4.163	4.171	0.8
파르나소호텔32-1	A+	600	2026-08-06	2027-02-26	1년	3.734	3.732	-0.2

주: 1) 2026.8.3~2026.8.7, 2) 발행물, 유통화증권 제외. 선순위, 무보증, 공모채기준 100억원 이상 거래
자료: 본드웹,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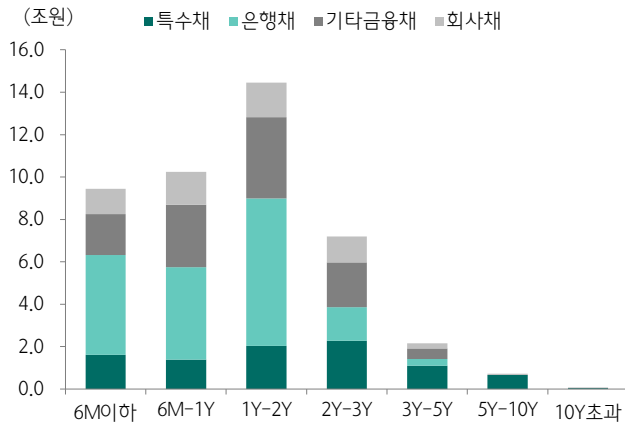
도표 18. 주간 회사채 강/약세거래 현황

(단위: 억원, bp)

강세				약세			
종목명(잔존기간)	신용등급	거래량	평균-민평	종목명(잔존기간)	신용등급	거래량	평균-민평
롯데리츠6-3(3월)	AA-	900	-36.6	엘지디스플레이43-2(녹)(3월)	A0	193	33.5
롯데리츠6-2(3월)	AA-	300	-33.7	대한항공106-2(1년)	A0	301	28.6
한국투자금융지주36-2(3월)	AA-	300	-29.0	대한항공106-2(1년)	A0	600	20.3
현대트랜시스45-2(3월)	AA-	200	-21.2	롯데렌탈61-2(6월)	A+	300	19.4
신한금융지주159-1(3월)	AAA	200	-10.8	롯데렌탈60-2(6월)	A+	300	18.5
현대백화점33-1(2년)	AA+	200	-10.2	호텔롯데77-1(1년)	AA-	400	11.9
연합자산관리33-1(3월)	AA0	300	-9.7	가온전선57-1(1년)	A0	300	11.2
KB증권49-2(2년6월)	AA+	300	-9.1	KB금융지주59(3년)	AAA	1500	9.0
삼성바이오로직스8-1(3월)	AA0	300	-8.7	LG화학57-2(1년)	AA0	800	6.4
키움증권11-1(3월)	AA0	200	-7.9	하나에프앤아이192-3(3년)	A+	100	6.1

주: 1) 2026.8.3~2026.8.7, 2) 발행물, 유통화증권 제외. 선순위, 무보증, 공모채기준 100억원 이상 거래
자료: 본드웹,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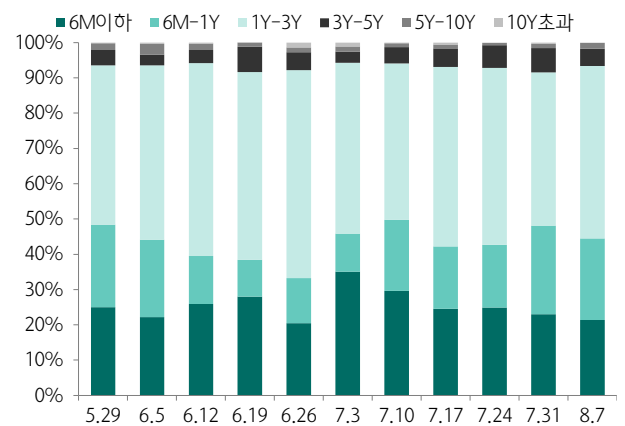
도표 19. 주간 잔존기간별 거래대금



주: 2026.8.3~2026.8.7

자료: 금융투자협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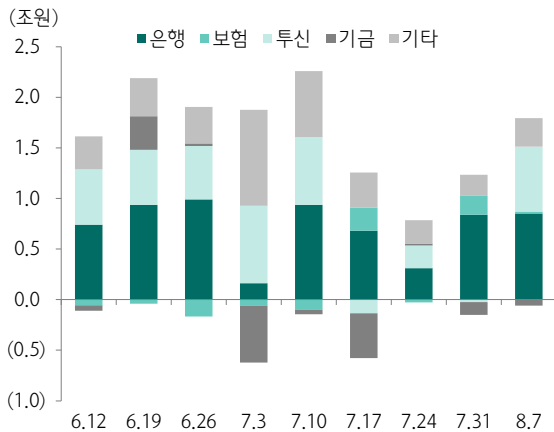
도표 20. 주간 잔존기간별 거래대금비중 추이



주: 주간단위(월~금) 작성

자료: 금융투자협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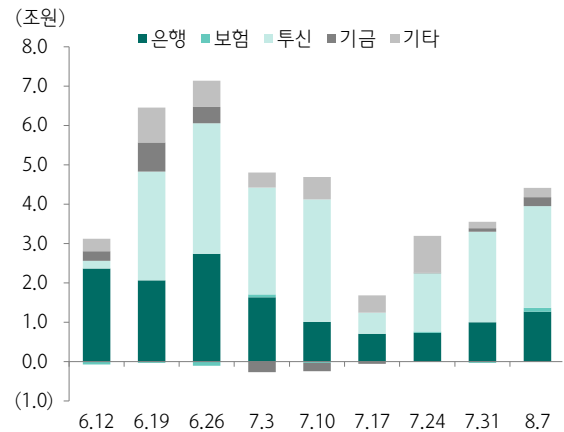
도표 21. 투자자별 특수채 순매수 추이



주: 기타에는 기타법인, 개인, 국가/지자체, 외국인, 종금 등 포함

자료: 금융투자협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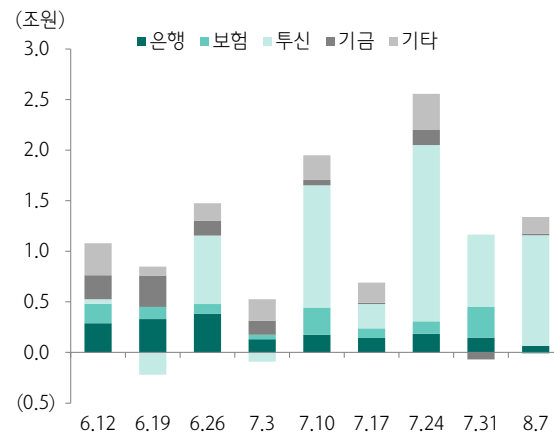
도표 22. 투자자별 은행채 순매수 추이



주: 기타에는 기타법인, 개인, 국가/지자체, 외국인, 종금 등 포함

자료: 금융투자협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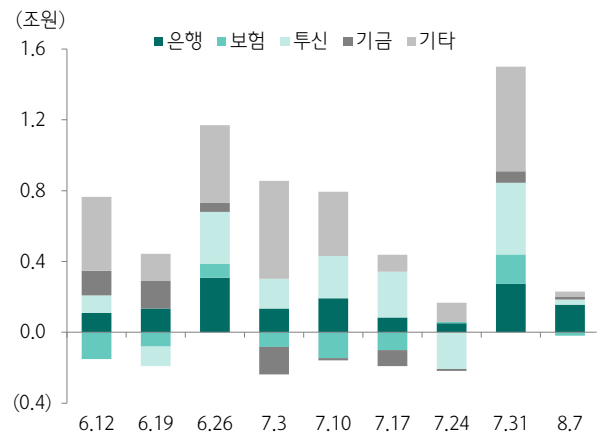
도표 23. 투자자별 여전채 순매수 추이



주: 기타에는 기타법인, 개인, 국가/지자체, 외국인, 종금 등 포함

자료: 금융투자협회, 하나증권

도표 24. 투자자별 회사채 순매수 추이



주: 기타에는 기타법인, 개인, 국가/지자체, 외국인, 종금 등 포함

자료: 금융투자협회, 하나증권

도표 25. 발행사 긍정적 등급전망 현황 (BBB- 등급 이상, 무보증 선순위채, 보험지급능력평가 / 8.7 기준)

구분	한신평	나신평	한기평
상향 검토	애크온캐피탈(A0/캐피탈)		
긍정적	LG전자(AA0/종합가전) 엘에스일렉트릭(AA-/전기장비) 포스코인터내셔널(AA-/종합상사) 한국항공우주산업(AA-/방산) 파르나스호텔(A+/호텔) 동원에프앤비(A+/식품제조) 통영에코파워(A+/민자발전) LS(A+/지주) 엘에스전선(A+/전력 및 통신 케이블) 대한항공(A0/항공) 에이치디건설기계(A0/건설기계) 한진칼(A-/지주) 코스맥스(BBB+/화장품) 한진(BBB+/물류) 두산(BBB+/지주) 가나안(BBB/제조업)	엘에스일렉트릭(AA-/전기장비) 한국항공우주산업(AA-/방산) 포스코인터내셔널(AA-/종합상사) 통영에코파워(A+/화력발전) 동원에프앤비(A+/식품제조) LS(A+/지주) 엘에스전선(A+/전력 및 통신 케이블) 금호타이어(A0/타이어) 대한항공(A0/항공) 에이치디건설기계(A0/건설기계) 한진칼(A-/지주) 삼성중공업(A-/조선) 한화오션(A-/조선) 한진(BBB+/물류) 두산(BBB+/지주)	포스코인터내셔널(AA-/종합상사) 엘에스일렉트릭(AA-/ 전기장비) 풍산(A+/비철금속) 통영에코파워(A+/화력발전) 엘에스전선(A+/전력 및 통신 케이블) LS(A+/지주) 현대코퍼레이션(A0/종합상사) 대한항공(A0/항공) 에이치디건설기계(A0/건설기계) 금호타이어(A0/타이어)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A-/지주) 한진칼(A-/지주) 삼성중공업(A-/조선) 한화오션(A-/조선) 한진(BBB+/물류) 한신공영(BBB0/건설) 티와이엠(BBB-/농기계) 화승코퍼레이션(BBB-/자동차부품)

자료: 신용평가 3사, 하나증권

도표 26. 발행사 부정적 등급전망 현황 (BBB- 등급 이상, 무보증 선순위채, 보험지급능력평가 / 8.7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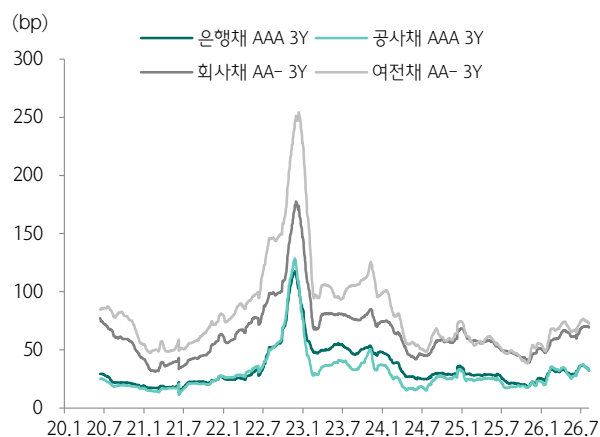
구분	한신평	나신평	한기평
하향 검토	에스케이실트론(A+/반도체)	에스케이실트론(A+/반도체)	에스케이실트론(A+/반도체)
부정적	엘지화학(AA+/석유화학) SK지오센트릭(AA-/석유화학) 롯데케미칼(AA-/석유화학) 케이씨씨글라스(AA-/건축자재) 포스코이앤씨(A+/건설) HD현대케미칼(A0/석유화학) 코리아세븐(A0/유통) 무림페이퍼(A-/제지) 두산퓨얼셀(BBB0/연료전지) 에스케이디앤디(BBB-/부동산개발)	엘지화학(AA+/석유화학) 한화솔루션(AA-/석유화학) 한화토탈에너지스(AA-/석유화학) SK지오센트릭(AA-/석유화학) SK지오센트릭(AA-/석유화학) 케이씨씨글라스(AA-/건축자재) 롯데케미칼(AA-/석유화학) 롯데물산(AA-/부동산임대) 동아에스티(A+/제약) 포스코이앤씨(A+/건설) HD현대케미칼(A0/석유화학) 신한자산신탁(A-/신탁) 에스케이어드밴스드(BBB+/석유화학) 신원(BBB-/의류제조)	한화솔루션(AA-/석유화학) 한화토탈에너지스(AA-/석유화학) SK지오센트릭(AA-/석유화학) 호텔신라(AA-/면세) 케이씨씨글라스(AA-/건축자재) 현대엘리베이터(A+/승강기) 포스코이앤씨(A+/건설) 동아에스티(A+/제약) HD현대케미칼(A0/석유화학) 대우건설(A0/건설) 코리아세븐(A0/유통) 엘에스엠트론(A0/산업기계) 무림페이퍼(A-/제지)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A-/이차전지 소재) 에스케이디앤디(BBB-/부동산 개발)

자료: 신용평가 3사, 하나증권

Key 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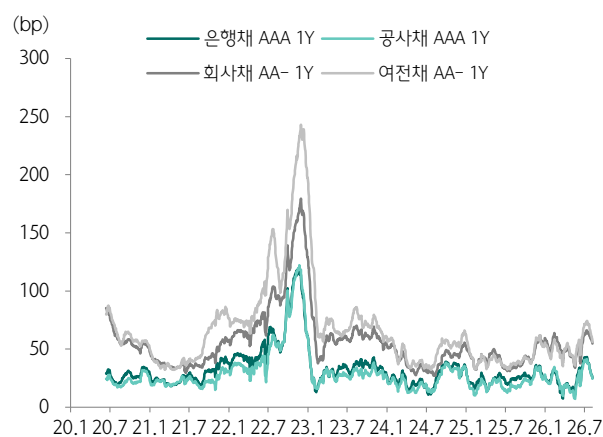
주요금리차(1)

주요 크레딧채권 신용스프레드(3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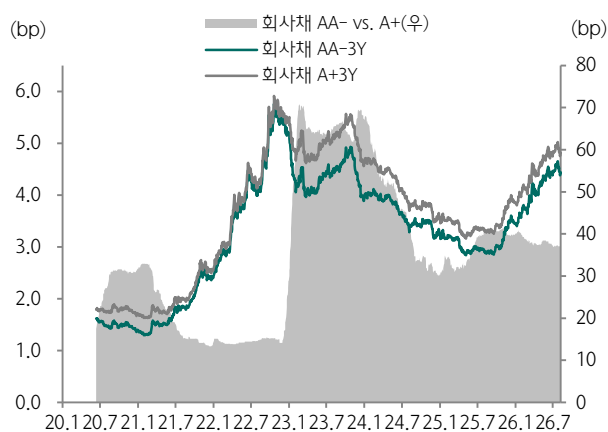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주요 크레딧채권 신용스프레드(1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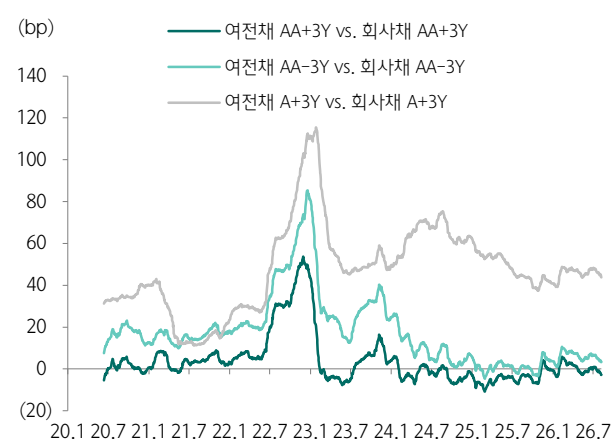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회사채 AA-/A+ 스프레드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여전채3Y/회사채3Y 스프레드 (AA+/AA-/A+)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여전채/회사채 스프레드(1Y/3Y/5Y)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국채 장단기 스프레드 및 회사채 AA- 스프레드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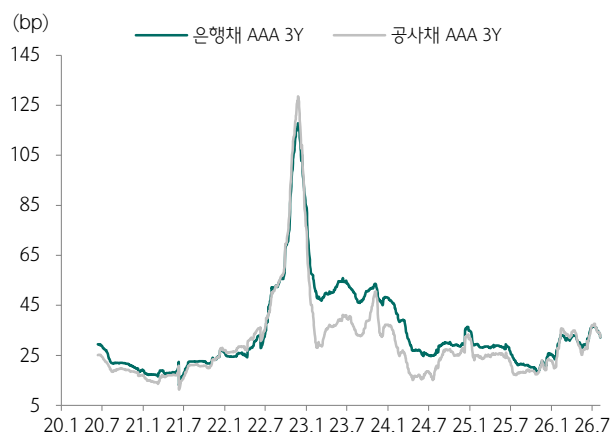
주요금리차(2)

특수채3Y/은행채3Y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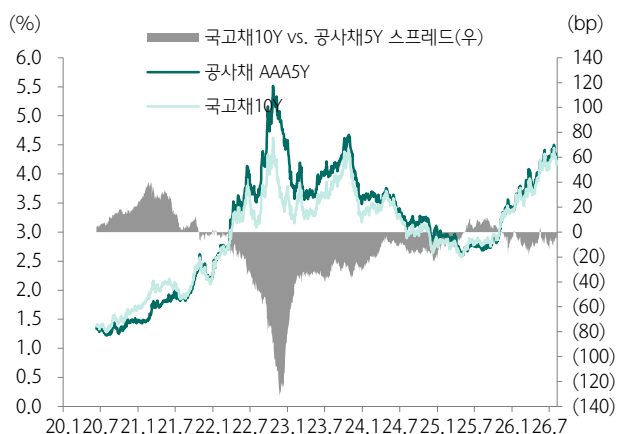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특수채AAA/은행채AAA 국고대비 Spread(3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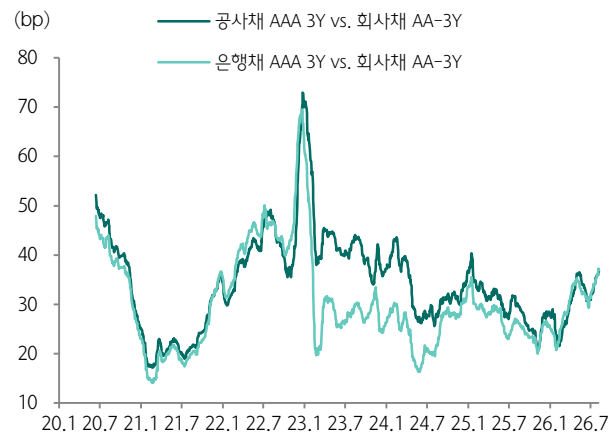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국고채10Y/특수채5Y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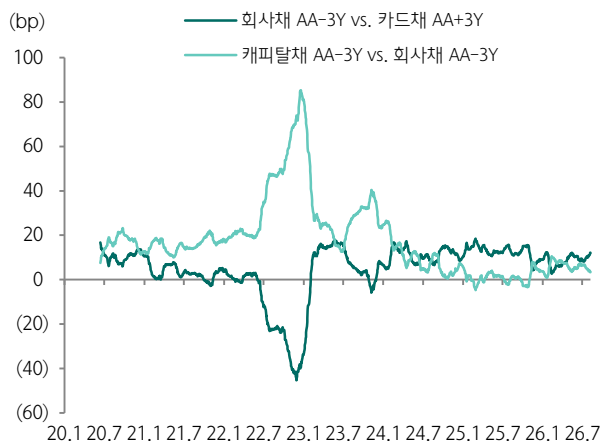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특수채AAA/은행채AAA 회사채(AA-)대비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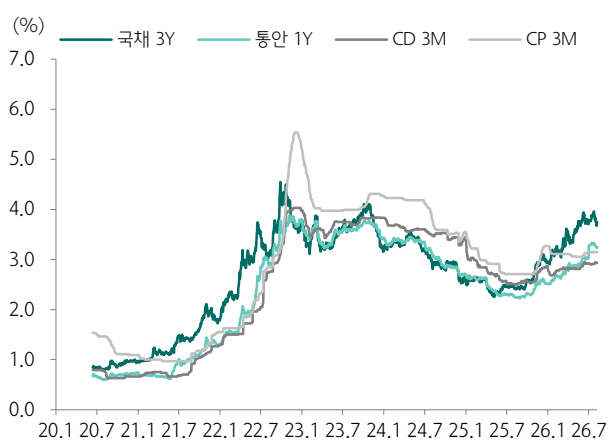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카드채AA+/캐피탈채AA- 회사채(AA-)대비 스프레드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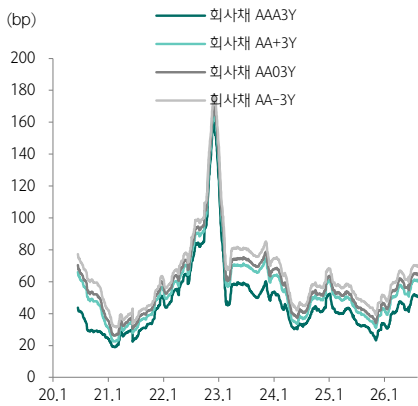
CP 3M/CD 3M/통안채1Y/국채3Y 금리 추이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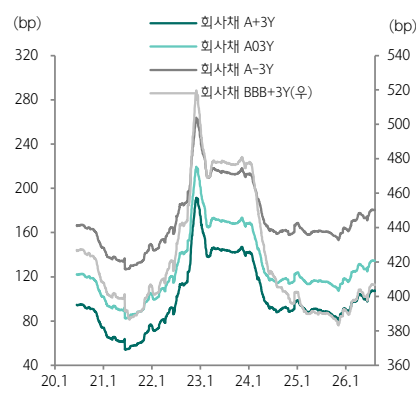
주요금리차(3)

AA등급 이상 회사채 스프레드 추이(3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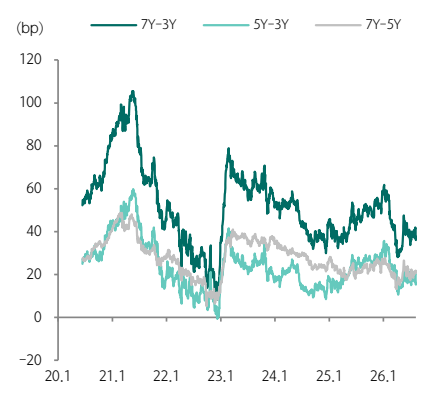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등급 이하 회사채 스프레드 추이(3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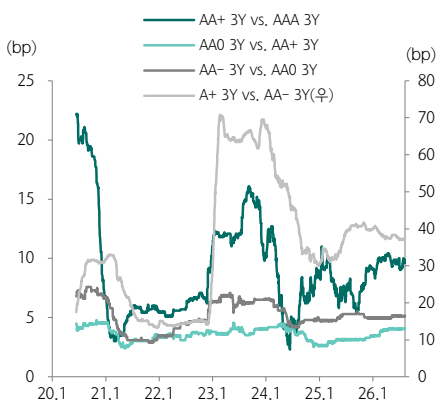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회사채 AA- 장단기 스프레드(3Y/5Y/7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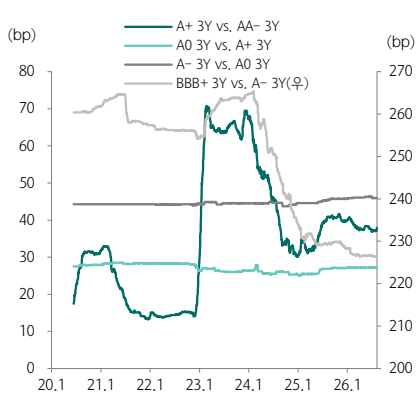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회사채 등급 간 스프레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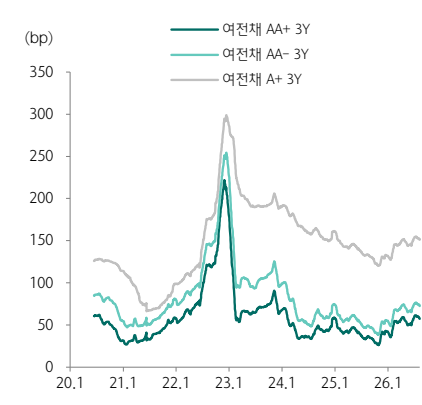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회사채 등급 간 스프레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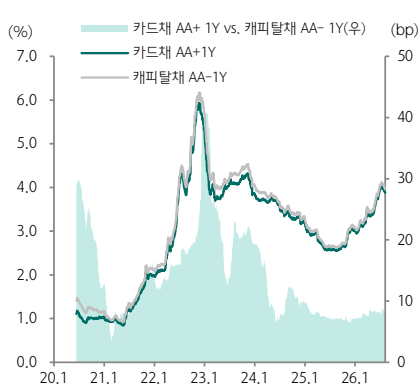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여전채 3Y 스프레드 추이(AA+/AA-/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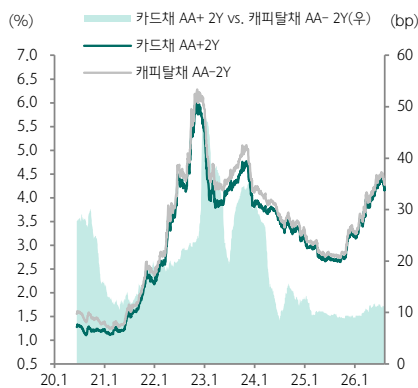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카드채/캐피탈채 스프레드(1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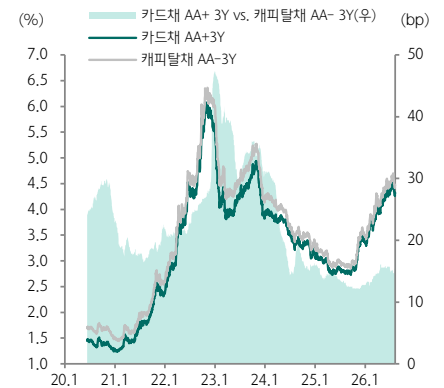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카드채/캐피탈채 스프레드(2Y)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카드채/캐피탈채 스프레드(3Y)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